



2026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HAPPY CHUSEOK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시편 128:1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찬 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찬송가 404장) 다 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가족 중에서 다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족에게 위로를, 수고한 가족에게는 쉼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가정 가운데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봉독 신명기 26:5-11 (구약 300 페이지) 인도자

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 할 것이며
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 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인 도 자

추석은 풍성함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진짜 풍성함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릴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 속에서 먼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쉽게 잊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를 나누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1.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말해야 합니다. (5-6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떠돌이였고,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살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묻으십니다. 우리도 스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애굽의 시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던 자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지금의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7-9절)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신앙의 전환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버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애굽 같은 시간을 지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11절)

하나님은 구원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레위인과 객이 함께 즐거워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게 됩니다. 자기만 잘되는 인생에서, 함께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했으나 구원받았고, 이제는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기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는 한 올해 우리의 추석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풍성하고 만남이 아니라 감사로 깊어지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찬송가 460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가족소식 **인 도 자**

기 도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